초강력 허리케인 '하비' 美 텍사스 강타

"최소 5명 사망" 언론 보도
'카트리나'보다 강력한 수준
이번 주 연안지역 폭우 고비
원유생산 타격…유가 영향 우려

힘들수록 힘 합쳐야…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가 몰고 온 폭우로 물바다가 된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27일(현지시간) 주민들이 물에 잠긴 차를 밀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가 미국 텍사스주(州)에 상륙한 뒤 열대성 폭풍(tropical storm)으로 등급이 떨어졌지만, 텍사스주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폭우와 홍수가 이어지면 660만 명이 거주하는 미국 4대 도시 휴스턴이 직격탄을 맞았다. 주요 도로는 침수 또는 침수 우려로 통행이 중단됐고, 공항 두 곳이 모두 폐쇄되고 8만2000가구가 단전됐다.

◇**인명 피해 속출**=27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26일 하비가 상륙한 미국 텍사스 주에서 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허리케인이 가장 먼저 휩쓸고 지나간 해안도시 락포트에서 주민 1명이 강풍 속에 집에 불이 나 숨졌으며, 대도시 휴스턴이 있는 해리스 카운티에서도 1명이 홍수 피해로 사망했다.

구조 당국이 공식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사망자가 최소 5명에 달한다"는 언론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10번 주간(인터스테이트) 고속도로 상에서 차량이 침수되면서 한 여성과 아이가 사망했다는 보고도 접수됐다.

어랜서스 카운티에서는 최대 14명이 미끄러짐, 추락, 찰과상, 골절 등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현재까지 1000명 이상이 긴급 구조됐지만, 구조요청은 계속 폭주하고 있다. 악천후 때문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지역에 구조 대원들이 진입하지 못해 당국은 아직 정확한 전체 피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실베스터 터너 휴스턴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현재 구조요청만 2000건 이상 접수된 상태"라고 전했다.

◇**주요 도로·공항 폐쇄되고 단전 등 피해도 속출**=곳곳에서 주택, 상가, 학교 등 건물이 심각하게 파손됐고, 도로는 무너진 전신주들로 엉망진창이 됐다. 전신주 붕괴, 전력설 단절 등으로 전력 공급이 끊겨 텍사스 주 전역에서 8만2000가구가 단전돼 주민 약 30만 명이 불편을 겪고 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전력이 복구되기까지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무엇보다 '하비'는 앞으로 4~5일간 텍사스 연안 지역에 폭우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미 국립기상청(NWS)은 홍수 경보를 발령하면서 "휴스턴 도심 지역의 홍수 피해가 재앙적이며, 상황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정유시설 타격, 국제유가 들썩**=멕시코만 연안에 집중된 정유업계도 직격탄을 맞았다. 하비가 상륙한 멕시코만 연안은 미국 전체 원유 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정제 능력은 하루 700만 배럴에 달한다.

멕시코만 연안 유전지대에는 30개가량의 원유 정제시설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당국은 텍사스 정제시설의 85%가 직·간접적으로 생산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허리케인 때문에 발레로 에너지, 플린트 힐스 리소스, 시트코 등 주요 정유사들이 텍사스주 코퍼스크리스티 인근의 공장들을 잠정 폐쇄했다.

허리케인 '하비'가 열대성 폭풍(tropical storm)으로 등급을 낮췄지만, 여전히 폭우·홍수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정유 설비들의 재가동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텍사스산 원유생산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를 비롯한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연합뉴스

? 허리케인 '하비'

지난 2005년 1200명의 사망자와 수십만 명의 이재민을 낸 허리케인 '카트리나'(3등급)보다 강력한 4등급 수준. 미국 본토 상륙 기준으로 카테고리 4등급 허리케인은 2004년 '찰리' 이후로 13년 만이다.

중국, 대북 제재 이행 2주째…효과 관심

중국이 최근 들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이행을 위해 석탄·철광석·수산물 금수에 이어 북한과 합작기업 설립 및 투자까지 금지함에 따라 어느 정도의 대북 제재 효과가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가 90%를 넘는 탓에 거론된 중국의 조치는 김정은 정권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통해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결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동시에 북한에는 추가적인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음을 보낸 것으로 해석됐다.

28일 코트라 중국 무역관과 중국 해관(세관격)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2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 데 이어 이달 15일부터는 철·납·수산물로 금수품목을 확대하고 북한산 석탄에 대해선 상한선 없이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여기에 이달 25일부터 중국 내 북한과의 합작기업 설립과 관련 기업의 투자 확대를 금지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일본 등이 북한 관련 중국 기업과 개인들에 대해 독자 제재를 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대외적인 선전용' 조치일 수도 있지만, 북한 경제를 더욱 죌 조치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8억4400만 달러(9466억원)이며 이중 이번 금지 품목은 56.1% 이른다.

중국 코트라 측은 "북한의 최대 수출 상대국인 중국의 이번 수입 금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면 북한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국 역사 미국 교과서에 실어주세요"
재미 청소년 50명 美 출판사에 편지

재미동포 청소년들이 교과서를 집필하는 미국 출판사 6곳에 "자랑스러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실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재미동포 초·중·고교생 50여 명은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에 삼국시대, 불국사, 석굴암, 금속활자와 직지심체요절, 훈민정음,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가의 활약, 독도, 위안부 그리고 한국전쟁과 경제 발전까지 다양한 내용을 실어 미국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싶다"는 내용으로 편지를 써 지난 25일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 일반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라 세계사 교과서를 집필하는 맥그로힐, 호튼 미플린 등의 출판사에 우송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에도 같은 내용의 청원 편지를 보낼 계획이다. 주 교육부는 8학년까지 교과서를 정해준다.

재미동포 학생들이 교과서 출판사나 주 교육부에 이런 취지의 편지를 보낸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이번에 편지를 보낸 청소년들은 자원봉사 교사들로 구성된 단체인 '에코코리아'가 지난 7월31일부터 4일간 진행한 연례 캠프에 참가했다. 이들은 캠프에서 개정된 캘리포니아 주 일반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라 앞으로 정규 학교에서 한국 역사문화를 더 많이 배우게 될을 알게 됐고, 또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를 미리 학습하는 기회를 가졌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97 당나라 장수 이정

'음산 야습' 작전으로 돌궐 정벌

이정(李靖, 571-649)은 현재의 섬서성 함양시에 해당하는 옹주 삼원 출신으로 자는 약사다. 당 고조와 태종 때 돌궐과 토욕혼을 정벌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능연각 24인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그는 수양제 때 과거시험을 합격해 현령에 임명되었다. 양제 말기 산서성 마읍의 태수 보좌관으로 후일 고조가 되는 이연 장군의 휘하에서 돌궐과의 싸움에 참여했다. 이연이 천하를 경영할 큰 뜻이 있음을 일찍이 파악했다. 진양에서 거병한 이연은 장안을 점령하고 이정을 체포해 처형하려 하였다. 그는 큰소리로 "장군이 의병을 일으킨 이유가 천하를 위한 것인데 어찌 대의를 이루지 않고 개인 원한으로 처벌하려 합니까"라고 항의했다. 이세민이 그를 사면토록 건의했다. 그는 세민 휘하에 배속되었다.

621년 고조의 명을 받아 조군왕 효공과 함께 강남 강릉의 소선을 공격했다. 성을 포위해 함락시키고 전함을 많이 노획해 소선이 견디지 못하고 항복했다. 장강의 주요 군사거점이 당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태종 이세민이 즉위했지만 북방은 여전히 불안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돌궐군이 국경을 자주 침범했다. 626년 힐리가한의 돌궐군이 쳐들어와 고릉현을 침략했다. 측근인 집실사력을 보내 돌궐이 백만 군대를 거느리고 공격해 올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나 태종은 "우리가 너희와 화친을 맺고 금과 비단을 준 것이 전후로 계산하지 못할 정도다. 어찌 큰 은혜를 전부 잊고 스스로 강성함을 과시하느냐"며 꾸짖었다. 직접 위수로 가서 힐리가한에게 약속을 저버린 것을 꾸짖었다. 힐리가한이 당의 군용이 매우 성대한 것을 보고 겁내 화친을 청했다. 양측은 백마의 목을 베고 맹약을 맺었다.

629년 병사 10만명을 모아 이정의 지휘하에 돌궐을 공격하게 하였다. 이세적, 시소, 설만철 등 주요 장군이 모두 참여했다. 12월에 돌궐의 돌리극한이 입조했다. 630년 정월 날쌘 기병 3천명을 이끌고 마읍으로부터 진격해 정양을 습격해 크게 격파했다. 돌궐은 당의 기습에 크게 놀랐다. 그는 음산에서 돌궐군을 대파했다. 1만명을 목베고 남녀 10여만명을 포로로 생포했다. "이정이 음산을 야습하다"는 이정야습음산(李靖夜襲陰山)이라는 고사가 탄생하였다. 힐리가한은 부하에게 사로잡혀 장안으로 압송되었고 동돌궐은 멸망했다. 돌궐의 제장들이 태종에게 천가한(天可汗)이 되달라고 청했다. 군신 및 장군들이 모두 만세를 불러 환영했다.

정관 8년(634년) 서북쪽의 토욕혼이 국경을 침략해 변경이 소란해졌다. 이정은 서해도행군대총관에 임명되어 정벌에 나섰다. 토욕혼 가한 모용복윤은 들풀을 다 태워버리고 경무장한 군사들은 사막으로 달아났다. 이정은 군사를 둘로 나누어 자신은 설만철, 이대량과 함께 북도로 진격하고 후군집은 임성왕 이도종과 남도로 나아갔다. 이정군은 토욕혼을 청해성 만두산공, 우심퇴, 적수원에서 패배시켰다. 후군집군은 청해성 파라진곡으로 진격했는데 물이 없어서 사람들은 얼음을 먹고 말은 눈을 먹었다. 5월 모용복윤을 오해에서 대파했다. 결국 모용복윤은 사막 속으로 도망쳤는데 측근에게 살해당했다. 그의 아들 모용순이 새로운 가한으로 세워졌다. 이런 공으로 637년 위국공에 봉해졌다.

그는 일찍이 명장 후군집에게 병법을 가르친 바 있다. 후군집은 태종에게 "이정이 장차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고 말하였다. 이유를 묻자 "이정은 신에게 간단한 것을 가르치고 정치한 것을 숨겼습니다"고 답하였다. 이정은 "이는 후군집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방이 평정되었으므로 신이 가르친 것으로도 충분히 오랑캐를 제압할 수 있는데 굳이 신이 가지고 있는 계책을 다 요구하는 것은 반란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고 답하였다. 결국 후군집은 태자 역모사건에 연루되어 주살되었다. 이정의 안목이 이정도로 뛰어났다.

말년에 태종의 요동 정벌에 참여했으나 연로해 크게 활약하지는 못했다. 649년 79세에 세상을 떠나 태종의 소릉에 배장되었다. 간관 왕규는 "나가면 장수가 되고 들어오면 재상이 된다"고 높이 평하였다.

투자가치 높은 물건,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문의 H. 010-3605-5000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147-4, 11, 15번지 - 313평
  209, 209-1번지 - 203평
- 31사단, 삼일아파트 지나서 옆마을
-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단기간 투자 최고지역
- 매매 - 평당 200만원 (조정가)

리조트 /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42억
- 온천지구 내 '(주) 바리오 화순' 에
  650억 투자 예정 (2018년 2월 착공)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광양,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락희호텔 근처
- 6층중 4층, 210평
- 2012년선축, 분할매매가능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시세/ 감정가 - 12억 5천만원
- 매매 - 7억 8000만원